www.stylechosun.com

09

September 2024
vol. 273

#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utumn Issue

# Contents

SEPTEMBER 2024 / ISSUE.273

**10_SELECTION**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가 돋보이는 초가을 룩.

**14_지금, 서울로 쏠리는 미술계 이목** 프리즈 서울, 그리고 프리즈와 공동 티케팅 등 협업 구도를 꾸리고 있는 키아프 서울이 올가을에도 코엑스(COEX)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자본과 취향의 세련된 어우러짐이 이끌어내는 수요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 장터인 아트페어는 도시를 성장시킬까?

**16_우리 곁에 남은 것과 멀어지는 것** 미술계에서 떠오르는 유망 작가인 카일리 매닝(Kylie Manning, b. 1983). 최근 서울 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에서 국내 첫 개인전 〈황해(Yellow Sea)〉를 시작했다.

**17_상상의 미래를 소환하는 설계자** '디자인 싱킹'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의 영리하고 흥미로운 '개념'을 둘러싼 세계가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펼쳐지고 있다.

**18_K-ART SHOWS**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동시에 열리는 아트 주간을 맞이해 한국 출신 작가들에게 관심과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 이우환, 서도호, 유영국 등 거장의 전시부터 젊은 작가들의 전시까지, 페어장 바깥에서 다양한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 신에 주목해보자.

24

16

**19_완벽한 집으로의 여정** '완벽한 집'을 주제로 아트선재센터에서 20년 만에 개인전 〈스페큘레이션스(Speculations)〉를 선보이는 서도호는 당대 최고의 설치미술 작가로 꼽힌다. 내년 5월에는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니, 당분간 그의 상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_SPLENDED RETURN**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노하우와 창의적 디자인의 결합으로 완성된 아이코닉함의 절정,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또 하나의 강력한 유산이자 새로운 매력을 더할 미니 사이즈로 선보인다.

**22_GLAM CHIC** 남다른 볼륨감으로 스타일에 품격을 더할 글래머러스 주얼리.

**23_ELEGANT TIMEKEEPER** 우아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크로노그래프 워치 6.

**24_GET THE LIST**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할 패션·주얼리·워치 리스트.

**26_TREND REPORT FOR WOMEN & MEN** 차분하고 단정한 컬러 팔레트와 완벽한 실루엣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성을 강조한 2024 F/W 컬렉션을 살펴본다.

**28_THE NEW NEW LOOK** 가을, 새로운 스타일과 만나다. 2024 F/W 키 룩 컬렉션.

**36_STEP INTO FALL** 발끝에서 완성되는 강렬한 스타일. 패션 하우스의 2024 F/W 시즌 뉴 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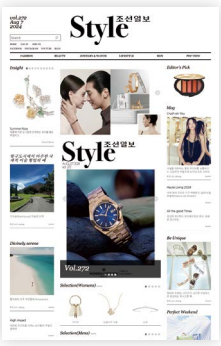
**37_COLOR ME!** 바랜 듯 차분한 레드부터 웨어러블한 핑크,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까지. 가을에 선명한 에너지와 재미를 더할 신상 립스틱 8.

**38_EDITOR'S PICK** 지금은 뷰티 서랍장 속을 바꿔줄 시간. 편집부가 엄선한 이달의 뷰티템 12.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지름이 23mm에 불과한 소형 로열 오크(Royal Oak) 쿼츠 모델을 공개한다. 18K 옐로·화이트·핑크 골드 버전으로 출시하며, 오리지널 로열 오크의 미학적 코드와 피렌체 전통 주얼리 제작 방식인 프로스티드 골드(frosted gold)의 광채를 결합해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선사한다. 문의 02-533-1351

**stylechosun.com**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십시오. stylechosun.com



12

28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성정민 sjm@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임 sji@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l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 Selection

포근한 소재와 따뜻한 컬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다.
클래식과 모던의 조화가 돋보이는 초가을 룩.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우아하고 단정한 느낌을 배가할 체크 패턴 크롭트 재킷 71만9천원 **산드로**.

부드러운 멜로우 카프 스킨 소재로 완성한 스몰 버즐 백 5백50만원 **로에베**.

심플한 디자인으로 데일리 룩에 제격인 하이퍼 볼라 펜던트 15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로 이루어진 에쿼스트르 140 숄 2백2만원 **에르메스**.

총 5.4캐럿의 로돌라이트 가닛 1개와 총 0.46캐럿의 16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쎄뻥 보헴 로돌라이트 트리플 모티브 링 1천만원대 **부쉐론**.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핑크 골드 소재로 완성한 마이 디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멋스러운 프레임이 특징인 선글라스 44만4천원 **버버리 by 에실로룩소티카**.

날렵한 실루엣이 심플한 무드를 선사하는 바레타 액세서리 디테일의 뮬 1백30만원 **토즈**.

총 0.1캐럿의 3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골드 소재의 뉴 이코니카 링 가격 미정 **포멜라토**.

레더 소재로 디테일을 강조한 블루종 재킷 8백12만원 **에르메스**.

유니크한 패턴 디자인이 멋스러움을 배가하는 다이 컷 레더 소재의 RL 888 툴 카프 스킨 톱 핸들 4백70만원 **랄프 로렌 컬렉션**.

가방에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줄 열쇠 모양의 가죽 트릭 가격 미정 **미우미우**.

감각적인 타이거 아이 다이얼이 눈길을 사로잡는 스파이럴 워치 4천1백45만원 **그라프**.

가벼운 소재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미디스커트 가격 미정 **메종 마르지엘라**.

어떤 룩에나 가을 느낌을 부여할 메리제인 가격 미정 **샤넬**.

**산드로** 02-3479-1527 **로에베** 02-518-6416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에르메스** 02-542-6622 **토즈** 02-3448-8233 **부쉐론** 02-6905-3322 **에실로룩소티카** 02-501-4436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포멜라토** 02-3143-9486 **그라프** 02-2256-6810 **미우미우** 02-541-7443 **메종 마르지엘라** 02-772-3234 **샤넬** 080-805-9628

## For the City People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스포티한 디자인의 익스트림 3.0 컬렉션이 2024 F/W 시즌을 맞아 라벤더 그레이 컬러로 선보인다. 레더에 세 가지 컬러를 디지털 프린팅해 입체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멀티컬러 효과를 연출했다. 특히 한국 익스클루시브 제품인 익스트림 3.0 M Lock 4810 버클 슬링백은 M Lock 4810 버클로 멋스러움을 배가했다. 몽블랑의 산악 탐험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조절 가능한 M Lock 4810 버클 스트랩을 장착했으며, 콤팩트 사이즈임에도 내부에 포켓과 신용카드 슬롯을 갖춰 실용적인 수납이 가능하다. 1백91만원. 문의 1877-5408

#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Sweet White

우윳빛 머더오브펄의 세계. (위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포제션 오픈 링** 핑크 골드에 약 0.2캐럿의 20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2개의 머더오브펄 카보숑 장식으로 완성했다. 5백25만원. 문의 1668-1874 **불가리 디바스 드림 링** 부채꼴을 꽉 채운 머더오브펄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해 우아함을 부여했다. 5백65만원. 문의 02-6105-2120 **반클리프 아펠 코스모스 비트윈 더 핑거 링** 화이트 머더오브펄과 다이아몬드로 꽃을 표현한 볼륨 링 3천5백30만원대. 문의 1877-4128 **쇼파드 해피 하트 링** 머더오브펄 스톤을 세팅한 하트 모티브의 위트 넘치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3백21만원. 문의 02-6905-339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성정민**

## Be My Girl

러블리한 무드의 메리제인. (위부터 차례대로) 뒤축을 꺾어 뮬로 착용할 수 있는 브이 로고 락커 메리제인 1백39만원대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5. 발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타비 컨트리 메리제인 가격 미정 **메종 마르지엘라.** 문의 02-3107-8061. 굽 측면 미우미우 레터링 로고가 포인트인 투톤 가죽 펌프스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메탈 DG 로고 디테일의 폴리싱 카프 스킨 메리제인 1백41만원대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포토그래퍼 **오현상** 인턴 에디터 **김보민**

## THINK PINK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하우스인 오데마 피게(Audemars Piquet)에서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로 제작한 7개의 새로운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Code 11.59 by Audemars Piguet)'를 선보인다. 손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으로 유명한 이 컬렉션은 스카이 블루나 딥 네이비, 그린 같은 매력적인 컬러에 시그너처 기요셰 다이얼과 현대적 미학이 담긴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고 핑크 골드 케이스로 출시되며, 고급스러움을 배가했다. 특히 얇은 손목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기존 지름 41mm 케이스에서 살짝 줄인 38mm로 두 모델을 선보이는 것 역시 인상적이다. 모두 오데마 피게에서 제작한, 각 모델에 어울리는 자동식 칼리버로 구동한다. 문의 02-553-1351

## BEAUTIFUL PARADISE

디올 성수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가 디자인한 2024 디올 겨울 컬렉션을 선보인다. 대나무를 활용해 공간 전체를 단장했으며, 입구로 들어서면 마르크 보앙(Marc Bohan)과 필립 기부르게(Philippe Guibourgé)가 1967년에 론칭한 미스 디올(Miss Dior) 라인의 이름을 오마주한 로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올 성수에서는 디올 하우스의 독보적인 헤리티지와 코드가 담긴 레디투웨어, 슈즈,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이번 2024 디올 겨울 컬렉션의 메인 백인 미스 디올 백을 선보여 특별함을 더했다. 주소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길 7 문의 02-423-2133

## 이토록 아름다운 숫자

숫자 5는 단순한 수를 넘어 샤넬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샤넬 화인 주얼리 크리에이션 스튜디오에서 프레셔스 골드에 이터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가브리엘 샤넬이 가장 좋아했던 숫자 5의 형태를 담아낸 아름다운 화인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인다. 숫자 5 모티브 자체만으로도 감각적인 포인트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세팅 브레이슬릿과 아름다운 디자인이 특징인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다이아몬드 세팅 네크리스가 하우스의 대담한 정신을 우아하게 표현한다. 문의 080-805-9628

# FEEL THAT JAZZ

재즈를 사랑하거나 관심을 지닌 이들, 혹은 다채로움을 사랑하는 문화 예술 향유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음악 축제가 있다. 오는 10월 중순(18~20일) 열리는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하 '자라섬재즈')이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이 재즈 축제에서 공개한 라인업은 벌써부터 재즈 애호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무려 16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전설의 색소포니스트 케니 가렛을 위시해 그 계보를 잇는 또 다른 스타 임마누엘 윌킨스가 첫 내한 공연을 펼치며, 현재 재즈 신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 피아니스트 에멧 코헨 트리오 등 17팀이 1차 라인업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동유럽 재즈의 흐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눈길을 끈다. 자라섬재즈의 14번째 포커스 국가로 선정된 폴란드의 재즈 뮤지션들이 소개되며(레셰크 모주제르를 비롯한 4팀), 체코의 비브라포니스트 미로 에락과 피아니스트 다니엘 불라킨이 결성한 퀄텟 에락/불라킨 '엘리시움', 헝가리의 너지 에마 퀸텟 등도 선보인다. 국내 재즈 뮤지션들도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티켓은 야놀자와 인터파크 티켓에서 판매하며, 최종 라인업은 홈페이지(www.jarasumjazz.com)와 SNS에 안내된다.

## 맑고 따뜻한 향기

관능적이고 세련된 니치 향수를 선보이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향사로 각광받는 프란시스 커정. 2009년 그의 이름을 딴 메종 프란시스 커정의 탄생을 알리며 초기 컬렉션으로 선보인 아폼 라인의 장점을 모아 만든 새로운 향수, 아폼 오 드 퍼퓸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은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향 자체에 중점을 두었다. 아폼 팜므의 맑은 네롤리 향을 시작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플로럴 향이 퍼지며 라벤더와 오렌지 블러섬 향이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옴므의 따뜻하고 포근한 바닐라 향이 부드럽게 감싸주는데, 베이스 노트의 앰버리가 향에 깊이를 더한다. 70ml 32만원. 문의 02-3479-1382

## Couture Cosmetics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담은 뷰티 신제품.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펜디 라 바게트 EDP** 브랜드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첫선을 보인 바게트 백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향수. 파우더리한 플로럴 향과 스파이시한 바닐라 향이 조화를 이룬다. 100ml 40만원대. 문의 02-544-1925 **꾸레쥬 오 드 퍼퓸 로 페일** 꾸레쥬의 미니멀리즘을 담은 향수로 톡 쏘는 핑크 페퍼와 레몬 향을 시작으로 바닐라와 라벤더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진다. 100ml 25만9천원. 문의 1644-4490 **지방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프레스드 파우더 N01 무슬린 파스텔** 쿠튀르 패션을 모티브로 아이코닉한 4G 로고를 하트 모양으로 제작한 고운 입자의 파우더 7.5g 7만9천원대. 문의 080-801-9500 **프라다 뷰티 프라다 립밤 U001** 프라다 삼각 로고 디자인과 메탈 소재의 링 악센트 케이스가 특징인 아이코닉한 립밤 3.8g 6만원대, 리필 4만5천원대. 문의 080-522-7199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 황금기를 추억하다

하우스의 첫 황금기인 1960년대를 추억하는 셀린느 윈터 24 아크 드 트리옹프 컬렉션에서 메종의 장인 정신을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셀린느 틴 니노 백을 공개했다. 이전 시즌보다 더 작은 틴 사이즈로 새롭게 선보이는 틴 니노 백은 잠금장치에 시그너처 트리옹프 로고를 더하고 블랙과 화이트 코튼 컬러 등으로 구성했으며, 부드러운 서플 카프 스킨, 트리옹프 캔버스 등 다양한 소재로 만나볼 수 있다. 타임리스한 디자인에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문의 1577-8841

Kiaf SEOUL X Frieze Seoul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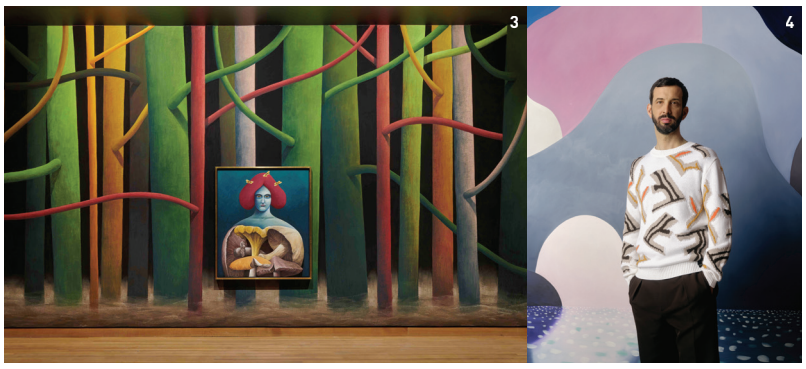
# 지금, 서울로 쏠리는 미술계 이목

세계 아트 페어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브랜드 프리즈(Frieze)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키아프(Kiaf)와 손잡고 서울을 중심으로 강렬한 아트 신을 만들어낸 지도 수년이 흘렀다. 어느덧 3회를 맞이한 프리즈 서울, 그리고 프리즈와 공동 티케팅 등 협업 구도를 꾸리고 있는 키아프 서울이 올가을에도 코엑스(COEX) 전시장에서 펼쳐진다(9월 4일 프리뷰 세션을 시작으로). 자본과 취향의 세련된 어우러짐이 이끌어내는 수요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 장터인 아트 페어는 도시를 성장시킬까? 어떤 맥락에서의 '성장'일까? 그동안 완연히 바뀐 미술 시장의 '판'을 바라보자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도시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트 페어에도 분명 수명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섬세하게 짜인 거미줄처럼 복잡다단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시장 네트워크에서 손익의 명암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브랜딩 차원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인 '아트 비즈니스'의 무대가 아닌 '도시 축제'로 꾸려갈 만한 국내 주자들의 의지와 역량은 입증된 듯하다. 시장의 등락을 겪어내며 크고 작은 갤러리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특히 메세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미술계 다양한 기관이 9월 아트 주간을 전후로 선보이는 공간과 콘텐츠의 위용은 해마다 세를 더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농담조의 발언이 나올 만큼 수준 높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올가을에는 광주와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열려 존재감을 배가하는 느낌이다). 다만, '객'이 떠나가더라도 국제적인 브랜드 파워를 영리하게 키워나가는 해법을 미리 고민해야 할 시점이긴 한 것 같다. 이 같은 배경에서 메세나와 아트 마케팅 사이에서 화려한 줄타기를 하는 듯한 기업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공간을 꾸리고 있는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Gallery Baton, Frieze Seoul 2023, Photo by Lets Studio, Courtesy of Lets Studio and Frieze. 이미지 제공_프리즈 서울

## Leeum X Hoam Museum of Art

**제목** 아니카 이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
**장소**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5길 60-16
**일정** 2024년 9월 5일(목)~12월 29일(일)
**웹사이트** www.leeum.org



**제목** 니콜라스 파티 〈더스트(DUST)〉
**장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562번길 38
**일정** 2024년 8월 31일(토)~2025년 1월 19일(일)
**웹사이트** www.hoammuseum.org

오늘날 세계 주요 도시 어디를 가든 '기업'의 투자나 기부를 배제한 아트 신을 보기 어렵다.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 예술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뜻하는 메세나 활동이든, 몇 수를 내다보는 브랜딩 전략 차원에서의 활동이든, 아니면 슈퍼 리치들의 취향이 담긴 투자든 말이다. 이런 흐름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예산의 제약에 시달리는 공공 영역의 볼멘소리가 늘 나올 만큼 현대미술 대가들의 작품 가격이 워낙 만만치 않기에 다양한 동시대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대중의 입장에서는 수준이 보장되는 전시라면 반가워하지 않기가 외려 힘들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잘 알려진 미술품 기증으로 미술계에서 삼성의 브랜드 파워는 대중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커졌지만 이미 이 생태계에서는 오랫동안 리움과 호암이라는 존재가 버텨왔다. 특히 긴 겨울잠을 잤던 리움이 2021년 기지개를 켜고 다시금 활발한 행보를 보인 덕에 이듬해인 2022년 프리즈(Frieze) 아트 페어가 입성했을 시기에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할 사립 미술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줬다. 고미술과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는 빼어난 소장품은 물론 동시대를 상징하는 뛰어난 작가들을 아우르는 기획을 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미술관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가을, 아트 주간에는 김범과 강서경 같은 현대미술가들을 소개했던 리움은 올해는 베이징 UCCA와 손잡고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서 러브콜을 쏟아내는 한국계 미국 작가 아니카 이(Anicka Yi) 개인전을 연다.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There Exists Another Evolution, But In This One)〉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첨단 기술과 생물학을 융합해 비인간 지능을 탐구하는, 실험적이기도 하고 특유의 미적 감성을 지닌 아니카 이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기회가 될 것이다. 짙은 녹음과 잔잔한 호수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품은 용인 호암미술관은 지난해 내부 레노베이션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 아트 주간에는 독특한 감성의 회화로 동시대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40대 스위스 작가 니콜라스 파티(Nicolas Party) 개인전 〈더스트(DUST)〉를 선보인다. 작가 특유의 감성이 도드라지는 파스텔화를 비롯해 전시장 벽에 그린 대형 벽화를 포함한 신작을 전시하며 리움의 고미술 소장품까지 활용한 '설치 미학'에 공을 들였다.

**1** 아니카 이 〈메타스포어〉. 피렐리 항가비코카 밀라노 전시 모습, 2022. 이미지 제공_ 작가, 밀라노 피렐리 항가비코카 밀라노. Photo by 아고스티노 오시오 **2** 아니카 이 작가의 모습. 이미지_작가, 글래스톤 갤러리, 에스터 쉬퍼, 47 카날 제공 **3** 〈Nicolas Party: L'heure mauve〉 전시 모습, 몬트리올 미술관, 2022. © Nicolas Party Photo by 장-프랑수아 브리에르(Jean-François Brière) **4** 니콜라스 파티. Photo by 리치몬드 람(Richmond Lam)

## APMA

**제목** 〈Elmgreen & Dragset: Spaces〉
**일정** 2024년 9월 3일(화)~2025년 2월 23일(일)
**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웹사이트** https://apma.amorepacifi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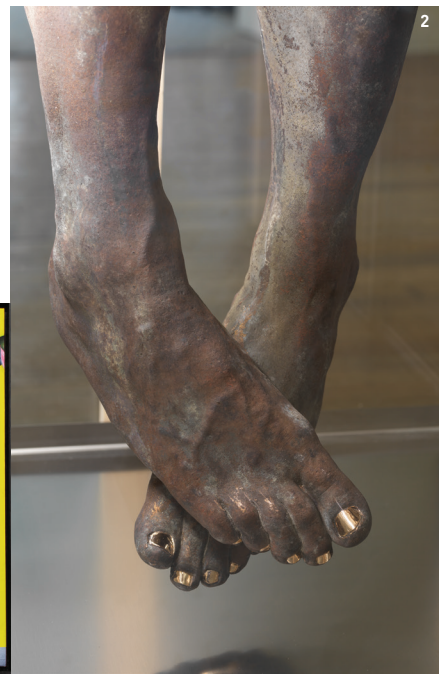
아모레퍼시픽 사옥은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 숲'에서 고요함을 간직한 건축을 의도했다는 설계자(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주장처럼, 눈에 띄기는 하지만 균형 잡힌 절제미를 품고 있다. 독립된 건축물이 아니어서 행인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이 사옥 안에는 현대미술관인 아모레퍼시픽미술관(Amorepacific Museum of Art, APMA)이 자리하고 있다. 2018년 멕시코 태생의 캐나다 출신 작가 라파엘 로자노-헤머(Rafael Lozano-Hemmer)의 미디어 아트 전시 〈Decision Forest(디시전 포레스트)〉전을 시작으로 한국 고미술 소장품 전시와 더불어 동시대 미술계를 수놓고 있는 다양한 작가들을 소개해온 이 미술관은 올가을 또 하나의 대형 기획전인 〈Elmgreen & Dragset: Spaces〉를 내놓았다. 1995년 결성된 북유럽 출신의 아티스트 듀오인 엘름그린 & 드라그세트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고착화된 사회·정치적 구조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해왔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표방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집, 수영장, 레스토랑을 비롯해 주방, 작가 아틀리에까지 총 다섯 곳의 대규모 공간 설치 작업을 비롯한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규모와 형태의 설치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같은 건물 1층에 자리한 프로젝트 공간인 APMA 캐비닛에서는 세계적인 화랑 가고시안 갤러리의 한국 첫 전시인 데릭 애덤스 개인전이 열린다.

Elmgreen & Dragset, The Screen, 2021. Photo by Elmar Vestner

## 송은(SONGEUN)

팬데믹 기간에 서울의 아트 신이 빛을 발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송은의 등장이었을 것이다. 국내 미술계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지녀온 송은문화재단 신사옥 개관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건축계 브랜드로 꼽히는 HdM(헤어초크 & 드 뫼롱)의 국내 첫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 건축 듀오 중 피에르 드 뫼롱을 만났을 때 그는 '숨어 있는 소나무'를 뜻하는 '송은(松隱)'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 건축물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건축주로서 명료하고 일관된 디자인 제안을 건넸다는 점에서 송은문화재단을 운영하는 ST인터내셔널(舊 삼탄)의 태도를 칭찬하기도 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다움이 부각될 것"이라는 HdM의 파트너 마틴 크누젤의 말처럼 점차 여물어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올가을에는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슈퍼 컬렉터 프랑수아 피노의 컬렉션 전시 〈Portrait of a Collection: Selected Works from the Pinault Collection〉이 열린다. 생 로랑(Saint Laurent)의 모기업 케어링(Kering) 그룹의 창립자이자 미술품 경매사 크리스티(Christie's)의 소유주인 프랑수아 피노는 베니스의 수려한 전시 공간 두 곳과 더불어 프랑스 파리의 부르스 드 코메르스(Bourse de Commerce)에 '피노 컬렉션'을 위한 미술관을 꾸리고 있다. 이미 2011년 아시아 최초로 피노 컬렉션 일부를 공개했던(구 송은 아트스페이스) 송은은 13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 관람객들에게 피노 컬렉션 전시를 선사한다. 파리 개관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이번 전시는 마를렌 뒤마(Marlene Dumas), 뤼크 튀망(Luc Tuymans), 피터 도이그(Peter Doig), 플로리안 크레버(Florian Krewer), 세르 세르파스(Ser Serpas), 루돌프 스팅겔(Rudolf Stingel), 리넷 이아돔-보아케(Lynette Yiadom-Boakye), 얀보(Danh Vo) 같은 작가들의 걸작(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제목** 〈Portrait of a Collection: Selected Works from the Pinault Collection〉
**일정** 2024년 9월 4일(수)~11월 23일(토)
**장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1
**웹사이트** https://songeun.or.kr



**1** 폴 타부레(Pol Taburet), My Eden's pool,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일 파스텔, 156×156×4cm.
ⓒ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Photo by Margot Montigny
**2** 얀 보(Danh Vo), untitled, 2021, 134×64.2×61cm. ⓒ Danh Vo Photo by Nick Ash
Courtesy of the artist and Galerie Chantal Crousel, Paris

## LIFEPLUS

**제목** 〈살롱한남 2024〉
**일정** 2024년 9월 4일(수)~14일(토)
**장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웹사이트** https://salonhannam.com

갤러리바톤, 타데우스 로팍 서울, VSF 등 유수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또 다른 구역인 서울 한남동 독서당로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풍부하고 강렬한 콘텐츠를 품은 전시 프로젝트가 펼쳐진다. 다채로운 면면을 지닌 5개 전시를 한데 선보이는 〈살롱한남 2024〉가 한화손해보험 한남 사옥(구 리플레이스 한남)에서 11일 동안(9월 4일~14일) 열린다. 한화 금융 계열사의 공동 브랜드인 라이프플러스(LIFEPLUS)가 주최하는 이 특별 전시 프로젝트는 과거 유럽에서 문화 예술 애호가들이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작품을 수집하며 후원하는 사교 모임이자 장소인 살롱 문화에 대한 오마주를 바탕으로 5개 공간을 무대로 삼는다. 첫 번째 전시 〈일상 자연(Everyday Nature)〉은 휘트니 미술관 출신 큐레이터 크리스토퍼 류와 그의 동료 콜 에이커스, 맹지영이 기획하고, 이미지와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관계를 탐구해온 3명의 작가(데이비드 하트, 해롤드 멘데즈, 박예림)가 참여한 그룹전이다. 이어 〈데본 턴불: 수퍼내츄럴 #1(Devon Turnbull: Super Natural #1)〉은 '스피커 조각가'라는 흥미로운 수식어를 지닌 브루클린 기반의 아티스트 데본 턴불의 아티스트 룸으로 꾸몄다. 직접 제작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Hifi Listening Room Dream No. 1'을 설치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인물로 이번 전시에서 범상치 않은 음악 감상의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국내 뮤지션들이 전시 기간 동안 리스닝 세션을 진행한다고. 세 번째 전시 공간은 이탈리아-영국 디자인 스튜디오 지오파토 & 쿰스가 한국의 봄에서 영감받아 만든 설치 작품을 보여주는 아트리움 〈경이로움이 만개한 숲(A Forest of Blossoming Wonders)〉으로 발렌티나 부찌가 기획했다. 그리고 현대미술 갤러리 샹탈 크루젤, 펫젤, 레겐 프로젝트, 리슨 갤러리와 협업해 기획한 네 번째 전시인 〈살롱플러스〉는 전통적인 매체의 미술 작품이 여러 디자이너 가구와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해 추상과 미니멀리즘, 평면과 입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와 손잡고 조성한 〈상상적 세계: 여성 초현실주의〉는 프리다 칼로, 레오노라 캐링턴, 레메디오스 바로 등 멕시코를 중심으로 활동한 초현실주의 여성 작가 7인의 작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LIFEPLUS TRIBES) 앱을 내려 받아 인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글 **고성연**

**1** Devon Turnbull, Super Natural #1, 2023, Speaker cabinets, TAD TD-4001 driver, steel horns, hardware
Installation view of 'Devon Turnbull: HiFi Listening Room Dream No.1 and other works' at Lisson Gallery, London, 12 July-26 August 2023. ⓒ Devon Turnbull, courtesy Lisson Gallery
**2** Rim Park, Murus, 2024, Oil and pigment on Korean paper, birch tree, decomposed lumber, 180×230×1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CYLINDER. Photo by Rim Park 이미지 제공_라이프플러스

1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작업에 임하고 있는 카일리 매닝(Kylie Manning). **2** 카일리 매닝의 작품 '항구(Harbor)'(2024), Oil on linen, 203.2×243.8cm. 카일리 매닝은 다채로운 색채의 바다 풍경과 인물의 물결로 화면을 힘 있게 채운다. **3**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예술 공간 스페이스K 서울에서 펼쳐지는 카일리 매닝의 〈황해〉 전시. 몰아치는 파도의 이미지를 얇은 실크에 그린 7m 크기의 회화는 전시장을 무대처럼 보이게 한다.
※ 1, 2, 3 이미지 제공_카일리 매닝 스튜디오, 스페이스K 서울

바다의 시작과 끝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망망대해 위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배에서 내린 뒤 화폭에 그대로 옮기는 화가의 작품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바다의 시작과 끝'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린 시절 알래스카와 멕시코 해안을 오가며 자란 카일리 매닝(Kylie Manning)은 한때 선원으로 일하며 5백 톤급 선박의 항해사 면허를 취득하기도 할 만큼 바다에 빠져 있었다. 그녀가 경험했던 거친 파도와 바람은 그대로 그녀의 작품으로 옮겨졌다. 색채가 휘몰아치는 듯 광활한 풍경이 펼쳐지는 작품을 마주하면, 어떤 인생이든 담대하게 관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가의 깊은 사색이 느껴진다.

"어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배에서 자랐고 물 위에서 일한 경험이 저의 모든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거대한 공간에 있으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자연 속에 혼자 있을 때 훨씬 편안해요. 제가 자라온 공간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느끼며, 그 경이로운 공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말처럼 작품 속 모든 화면에서 무한한 바다와 자연이 연결되지만, 카일리 매닝은 표면 아래 깔려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막막한 자연 풍경에 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까지 등장시켜 추상과 구상이 혼재된 화면은 긴 서사가 담겨 있지만 결코 결말을 알 수 없는 한 편의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녀는 '내러티브와 인물이 파악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놀라움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추상적인 옅은 물감층 사이의 인물들은 사실 그녀가 옛날 가족사진 등에서 발견한 추억이지만, 보는 이들은 각자 떠올리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삶을 확장해나가게 된다. "훨씬 개방적이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인물을 그리고 싶었어요. 우리 삶은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인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는 중성적인 인물을 드로잉으로 담아내지만, 마지막에 그 드로잉을 뭉개면서 관람객들에게 자유를 안겨주고 싶다고.

이번 전시에서 카일리 매닝은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 9m에 달할 만큼 큰 한국의 '황해(한반도 서쪽에 있는 바다)'에서 '넘치는 잔해와 소음, 흔적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엔 무엇이 걸러지고 농축되는가?'에 대한 사유를 구상과 추상의 밀고 당김으로 풀었다. 어업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다가 한국에서 처음 생겨난 고유의 낚시법인 '견지 낚시'를 알게 되었고, 이 연구가 황해로 이어졌다고. 이 개념은 제주도의 해녀로 향해 제주도의 역사와 신화, 놀라운 지형과 지리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신작 '머들(돌무더기)'이 바로 제주도의 겨울 풍경을 닮은 작품. 핫 핑크부터 에메랄드, 그린과 블루가 함께 춤추는 듯(실제로 최근 뉴욕 시티 발레단과 협업하기도 했던 그녀는 서울에서는 국립현대무용단과 같이했다), 화면마다 다양한 색에서 발산되는 빛이 소용돌이친다. "모든 색은 주변 색상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요제프 알베르스의 색채 이론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일과 토끼 아교를 바른 리넨과 다양한 흰색으로 깔끔하게 밑칠한 캔버스에 커다랗게 붓질을 하며 작업을 시작하고, 그 위에 엷고 넓게 색을 칠합니다. 어떤 색은 1천 년 전의 색이고 어떤 색은 1천 년 후의 색인 것 같아요." 그녀는 물감을 엷게 여러 겹 칠하고 각 층의 유분으로 빛을 굴절시키는 바로크 회화 기법처럼 빛을 내는 효과를 만든다고. 실크에 그린 그림들이 마치 거친 파도를 항해하는 배 위 돛처럼 전시장 한가운데 7m 길이로 걸려 있는데, 그 사이를 걸어 다니다 보면 위태롭고 섬세한 바다 위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디블렌트 CD)

카일리 매닝, 〈황해(Yellow Sea)〉展

# 우리 곁에 남은 것과 멀어지는 것

세계적인 갤러리 페이스의 주목을 받으며 미술계에서 떠오르는 유망 작가가 된 알래스카 출신의 카일리 매닝(Kylie Manning, b. 1983). 현재 그녀는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서울 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에서 국내 첫 개인전인 〈황해(Yellow Sea)〉를 시작했다. 처음 시도하는 작업을 선보이는 등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한 전시 현장을 직접 찾은 그녀를 만나봤다. 전시는 11월 10일까지.

다니엘 아샴, 〈서울 3024-발굴된 미래〉展

# 상상의 미래를 소환하는 설계자

아티스트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커리어 전반에 걸친 작업을 해나갈 때 '잘 뻗어나간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들의 중요한 공통분모는 '확장성'이다. 그래서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첫 아이디어의 중대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의 작업 세계를 존재하게 하고, 확장하도록 이끈 핵심은 '상상의 고고학'이라는 개념이다. 조각, 회화, 건축, 영상 등의 장르를 넘나드는 그를 흔히 시각예술가라고 부르지만 '정수'를 들여다보자면 개념 미술가라 할 수도 있는 이유일 것이다. 뉴욕 브루클린에 스튜디오를 두고 활동하는 또 다른 아티스트 다니엘 아샴의 영리하고 흥미로운 '개념'을 둘러싼 세계가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펼쳐지고 있다.

'상상의 고고학(Fictional Archeology)'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물건이 어떤 미래에 유물로 발굴된다는 개념으로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 b. 1980)의 작업 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개인전 〈서울 3024(Seoul 3024)〉 제목을 비롯해 지하철 역사 여기저기 붙여 있는 홍보 포스터 문구에도 담겨 있는 개념이다. "이번 역은 서울 3024입니다. 내리실 문은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 '천 년 뒤 서울'을 배경으로 시공간을 가늠하기 힘든 다양한 오브제와 조각, 풍경이 펼쳐지는 전시다. 그의 세계에서는 허구와 현실이 뒤엉켜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어 전시장에 들어서면 마치 다중 시점이 녹아든 SF 영화의 한 장면에 뛰어든 듯한 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

예컨대 전시장 첫 번째 방에 있는 조각 작품 '푸른색 방해석의 침식된 아를의 비너스(Blue Calcite Eroded Venus of Arles)'를 보자. 우아한 자태로 한 손에는 사과를, 다른 한 손에는 부서진 거울을 들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보이는 이 조각은 루브르 박물관 '아를의 비너스'를 원작으로 삼았는데, 발견된 당시에도 오른팔이 없었고, 왼팔도 일부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최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누구도 모르기에, 다니엘 아샴은 2020년 파리 전시를 준비하면서 '3020년'에 발견된 조각상이라는 가상의 스토리를 더해 재해석을 시도했다. 폭 5m에 이르는 대형 회화인 '숭고한 계곡, 스투바이탈(Valley of the Sublime, Stubaital)'은 '모든 경계를 허문다'는 아샴의 세계관이 응집된 작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스트리아 티롤에 자리한 아름다운 계곡 스투바이탈의 웅장한 풍경을 배경으로 스타워즈의 '알투-디투'와 '쓰리피오', 그리스 장군 페리클레스, 포르셰 911 터보 등이 등장한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유적지, 건축, 조각물을 결합하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영원하지 않은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그가 미래에서 소환한 서울의 모습은 어떨까? 고고학적 발굴 현장을 재현한 '발굴 현장'이란 장소 특정적 작품을 통해 1천 년 뒤인 3024년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상상했다. 휴대폰, 신발, 카메라 같은 현대적 물건이 마치 오래된 유물처럼 파손되고 풍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발굴 현장'이다.

**1**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다니엘 아샴의 대규모 개인전 〈서울 3024(Seoul 3024)〉 전시 풍경. 폭 5m에 달하는 대형 회화인 '숭고한 계곡, 스투바이탈(Valley of the Sublime, Stubaital)'(2023)이 보인다. Photo by 고성연
**2** 다니엘 아샴 전시 포스터.
**3** 다니엘 아샴 개인전 설치 모습. 시대와 문화, 장르를 넘나드는 작가의 작품 2백50여 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된다.
**4** 다니엘 아샴의 2023년 작품인 '분절된 아이돌(Fractured Idols)', Fractured Idols VI, 2023, Acrylic on canvas. 285.8×250.2×8.6cm. Photo by Silvia Ros,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5** 자신의 롯데뮤지엄 개인전 프리뷰 행사를 찾은 다니엘 아샴 작가. Photo by 고성연

스튜디오를 둔 뉴욕을 비롯해 파리 등 여러 도시에서 '천 년' 시리즈를 펼쳐온 다니엘 아샴은 전시 프리뷰 행사 때 서울을 찾았는데(세 번째 방한이라고), "반세기 또는 1세기 전의 과거와 비교하자면 세계는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발언은 그를 문화 예술계의 주목을 받게 한 중요한 계기인 이스터섬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2010년 커다란 얼굴 모양의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 이스터섬에서 루이 비통의 '트래블 북(Travel Book)' 시리즈를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석상과 컴퓨터 간의 시간적 간극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데서 발상의 단초를 얻었다. "루이 비통 여행 스케치를 하는 작가들은 며칠간 머물곤 하는데 저는 이스터섬에 6주나 보냈어요. 섬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모여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폐차, 컴퓨터 등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죠. 모아이 석상과 컴퓨터 같은 물건의 시간적 간극은 생각해보면 현재와 천 년 뒤 미래와의 간극보다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스터섬에서 뜻하지 않은 자극을 받은 그는 집으로 돌아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오브제를 지질학적 재료를 사용해 미래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상상의 고고학'이란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다. 아마도 루이 비통 '트래블 북' 프로젝트에서 스스로를 위한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낸 인물이 아닐까 싶은 다니엘 아샴. 어린 시절 허리케인을 겪은 충격으로 자연과 인공적 건축의 공존, 시간성 등을 골똘히 생각하게 됐다는 그는 어느덧 선천적 색맹 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세계 유수 도시에서 열리는 자신의 전시를 보러 여행하는 아티스트가 됐다. 글 **고성연**

# K-ART SHOWS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이 동시에 열리는 아트 주간을 맞이해 한국 출신 작가들에게 관심과 기회가 집중되고 있다. 개최 도시 입장에서 국제적인 아트 페어가 의미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이우환, 서도호, 유영국 등 거장의 전시부터 글로벌로 향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까지, 페어장 바깥에서 다양한 규모로 펼쳐지고 있는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 신에 주목해보자.

'현대미술의 달'이라고 해도 무방한 9월을 맞이해 한국 작가들의 전시가 풍성한 만찬처럼 펼쳐진다. 쉽게 볼 수 없었던 거장의 전시부터 중견 작가, 젊은 한국 작가의 전시가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서울로 모이기에 거장은 거장대로, 중견은 중견대로 세계의 주목을 이끌어내기에 좋은 시기다. K-컬처 열풍도 한국 미술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 긍정적 효과를 불어넣고 있다. 최근에는 거장 작가들뿐만 아니라 3040 젊은 작가들도 미국과 유럽의 유명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여는 일이 잦아지며 한국 작가들의 명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먼저 페이스갤러리 서울에서는 이우환과 마크 로스코의 2인전 〈Correspondence: Lee Ufan and Mark Rothko〉를 개최한다(9월 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번 전시는 로스코 유족과 협력해 이우환 작가가 직접 기획에 참여했다. 추상적인 형태와 철저한 절제로 사유를 이끌어내는 두 예술가의 작품을 대화하듯 배치해 더 기대감을 모은다.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제작된 이우환의 'Dialogue'와 'Response' 연작 회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공개된 마크 로스코의 주요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식이다. 갤러리 1층 중정에서는 강철판 위에 무거운 돌이 떨어지는 형태로 구성된 이우환의 새로운 설치 작품 'Relatum-Correspondence'를 볼 수 있는데, 무척 명상적이다. 한국 1세대 추상화가 유영국의 개인전도 열린다. PKM 갤러리의 하반기 첫 전시인 〈유영국의 자연: 내면의 시선으로〉에서는 작가 사후 최초로 공개되는 소품을 볼 수 있다.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서양의 추상미술을 접목한 추상회화의 선구자 유영국은 무엇보다 '중용'의 미덕을 중시했다. 웅장하면서 평온하고, 대담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의 작품들을 지그시 보고만 있어도 헌신적인 예술가의 삶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10월 10일까지).

비어 있는 공간 속에서 점이나 선으로부터 시작하는 조각을 만드는 존 배의 개인전도 갤러리현대에서 10여 년 만에 열린다(10월 20일까지). 존 배는 1960년대부터 철사를 이용해 여러 작품을 만들어왔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드로잉과 회화까지 70여 년에 걸친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아우르는 작품 30여 점을 선별했다. 철을 이용해 공간의 선율을 만들어내는 그의 작품은 인간의 기억과 잠재의식뿐 아니라 음악, 과학, 문학 등을 다양하게 탐구한다. 국제갤러리는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30주년 기념 전시에 참여한 마이클 주(Michael Joo)의 아크릴 패널 신작 시리즈를 선보이는 개인전 〈마음의 기술과 저변의 속삭임〉(서울점 K2, 11월 3일까지)과 더불어 같은 기간 K1, K3, 그리고 한옥 공간에서 함경아 개인전을 펼친다. 자신이 바라보고 경험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3개의 악장으로 꾸려 공유하는 전시로 작가의 고유명사와도 같은 '자수 프로젝트'를 비롯해 여러 작업을 볼 수 있다.

**1** 〈유영국의 자연: 내면의 시선으로〉 전시 설치 모습. 1950~1980년대 유화 작품 34점과 화가로서의 궤적을 담은 아카이브 자료를 소개한다. **2** 존 배 작가의 'Here and Now', 1986, 철, d_33cm (sphere) h_127cm(column). 이미지 제공_갤러리현대 **3** 파라핀을 녹여 공간과 구조물에 도포하는 김덕희 작가의 설치 작품, '밤이 밤에게(To Night, From Night)', 2024. © Gallery Baton **4** 김지영 작가의 '과거는 미래의 얼굴로', 2024, 우드 패널에 아크릴, 오일 파스텔, 262.5×186×3.8(h)cm. 이미지 제공_P21 **5** 이우환의 'Response', 2022, Acrylic on canvas, 218×291×6cm. © 2024 Artists Rights Society(ARS), New York/ADAGP, Paris. **6** 차재민 작가의 작품 '광합성하는 죽음(Photosynthesizing Dead in Warehouse)', 2024, Single channel video, 4K, color, sound, 30min, 스틸 이미지. 이미지 제공_작가, 일민미술관 © 차재민

4

5

6

### 글로벌 무대로 향하는 젊은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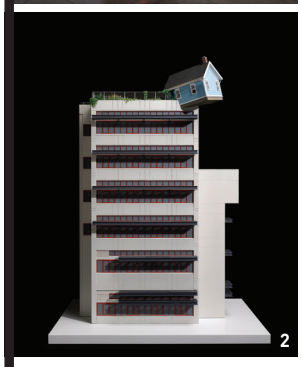
일민미술관은 〈IMA Picks 2024〉를 펼치며 차재민, 백현진, 김민애 등 3명의 작가를 선정해 각각의 개인전을 선보인다(11월 17일까지). 차재민 작가의 전시 〈빛 이야기 Stories of Visible Spectrum〉는 개인이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보여준다. 예술과 삶, 죽음과 탄생의 이미지를 포착하는 질문과 기록을 담은 에세이 필름 〈광합성하는 죽음〉은 미술 비평가 곤노 유키가 영상 속 내레이션을 맡았다. 미술가, 음악가, 배우, 감독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백현진은 〈담담함안담담함 라운지〉라는 전시에서 36점의 작은 회화로 구성된 신작 '당신의 배경', '벽을 위한 그림', '자살 방지용 그림' 등의 대표작을 선보이고 매주 금요일 저녁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김민애는 〈화이트 서커스〉라는 전시를 통해 어딘가 기이하고 들뜬 서커스의 분위기를 다양한 조각과 설치로 선보인다. 시간성과 서사성을 아우르며 세계의 다양한 현상을 실험적인 설치 작업으로 보여주는 현대미술가 김덕희의 개인전 〈사과와 달(The Apple and The Moon)〉도 눈여겨볼 만하다(갤러리바톤, 9월 14일까지). 이번 개인전에서는 작가의 대표적인 설치 작품인 저해상도 영상 기기의 픽셀을 조형화한 작업과 파라핀을 녹여 공간과 구조물에 도포하는 작업, 픽셀 작업에서 파생된 새로운 영상 작품을 선보인다. P21 갤러리에서는 김지영의 개인전 〈밤의 목덜미를 물고〉를 개최한다(8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회적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작가로, 폭력의 근원이 개인의 생존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업이 때론 시적으로 보인다. 익숙함을 깨는 조각가 김인배의 개인전 〈없는 것을 보고〉(프라이머리 프랙티스, 10월 13일까지), 재일교포 3세 김사직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 〈생명은 모두, 원의 중심에서 온다〉(더레퍼런스, 9월 22일까지)도 눈길을 끈다. 김리아갤러리에서는 개인과 세상의 관계를 치열하게 화폭에 담아내는 박태훈 작가의 개인전 〈COMPLEX PARK〉가 열리고 있다(9월 28일까지).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디블렌트 CD)

# 완벽한 집으로의 여정

서도호가 돌아왔다. '완벽한 집'의 이야기로!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워싱턴 D. 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진 데 이어 아트선재센터에서 20년 만에 개인전 〈스페큘레이션스(Speculations)〉를 선보이는 서도호는 당대 최고의 설치미술 작가로 꼽힌다(전시는 11월 3일까지). 내년 5월에는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니, 당분간 그의 상상은 세계 어디에서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


2

3

**1** 자신의 작품 '완벽한 집 S.O.S.(Smallest Occupiable Shelter,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대피소)' 앞에서 찍은 포트레이트. Photo by Seowon Nam. © 2024. Art Sonje Center all rights reserved **2** 서도호 작가의 '별똥별'(1/23 스케일), 2024, 혼합 재료, 157.1×103.3×65.5cm. Photo by 정태수. 작가, 리만머핀(뉴욕, 서울), 빅토리아 미로(런던, 베니스) 제공. © 서도호 **3** 서도호 작가의 '비밀의 정원', 2012, 혼합 재료, LED 조명이 부착된 디스플레이스 케이스, 199×180×82cm. Photo by 정태수. 작가, 리만머핀(뉴욕, 홍콩, 서울), 빅토리아 미로(런던, 베니스) 제공. © 서도호 **4** 프리즈 서울 기간에 LG 올레드 라운지에서 열리는 서세옥, 서도호, 서을호의 전시 〈Suh Se Ok×LG OLED : 서도호가 그리고 서을호가 짓다〉 포스터.

### 인종과 국가와 성별을 초월하는 대안적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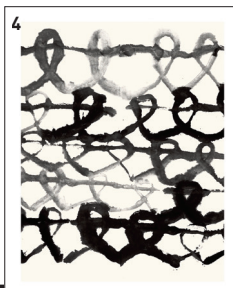
시간, 공간, 기억, 움직임 등을 재구성해 대안 세계에서 가능한 것들을 탐구하면, 문화의 이동과 차이에 대해 새로운 맥락을 부여할 수 있을까? 건축과 신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서도호 작가가 또 새롭게 대안적 세계를 펼쳐놓았다. 뉴욕과 런던에서 지내며 스스로를 늘 '이주민'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20년 만에 다시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인전 〈스페큘레이션스(Speculations)〉를 선보였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만약이라는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해나가는 작업 과정을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표현했어요. 제 작업 과정이 거의 그런 과정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국경 없이 연결할 수 있을까? 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3차원 세계에서 만들 수 없는 작품까지 구상하게 됐는데, 1991년 미국으로 유학 가서 사용하기 시작한 스케치북 포맷 그대로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고 기록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프로젝트, 허구적이고 개념적인 영역을 조금씩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왔고, 그것들이 모여 아트선재센터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뤄지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림을 그리고 ㅈ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모형과 도면을 제작했다지만, 사실 이번 전시장의 작품 중 3분의 1은 실제로 이뤄진 것들이다. "한 문화의 건축물이 날아가 다른 문화의 건축물에 박힌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서도호의 '별똥별' 연작은 지금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바뀌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구현했다. 자신이 살던 한옥 모양의 구조물을 영국 리버풀의 빌딩 사이에 구겨 넣듯 설치한 '다리를 놓는 집'도 그렇다. 최근작 '완벽한 집 S.O.S.' 역시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대피소' 라는 상상에서 시작했는데, 일주일간 북극해의 극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명복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번 전시에 내놓은 작품은 아직 진행 중인 연구 과정의 일부로, 완성된 결과물은 내년에 선보인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된다.

2012년 리움 미술관 전시에서 선보인 '천으로 만든 집' 등 그간 비교적 큰 설치 작품 위주로 선보였지만, 서도호 작가는 이런 설치 작품은 '아이디어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대답한다.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사실 이제 그에게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없는 듯 보인다. "완벽한 집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신이 집이라고 느끼는 두 도시, 뉴욕과 서울을 잇는 다리 위에 '완벽한 집'이 있을 거라고 상상한 데서 시작한 〈완벽한 집: 다리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거주지인 런던을 추가해 서울, 뉴욕, 런던 세 도시를 등거리로 연결한 지점에 '완벽한 집'을 설계했다. 이 집은 북극 보퍼트해에 위치하는데, 세계적인 생물학자와 물리학자, 건축가 등과 협업하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이 '완벽한 집'은 조만간 북극 보퍼트해에 어떤 형태로든 설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엔에 전화해 "북극해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라라고 선포할 수 있느냐"고 묻기까지 했다고.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목적점이 없습니다. '다리 프로젝트'도 이동에 대한 작업이지만 종착역을 생각하지 않고 작업합니다. 서울에서 북극해까지 다리를 만들어, 저에게 제일 중요했던 3개 도시의 집을 짓겠다고 설정하고 사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집'은 핑계고 사실 약간 〈사유기〉를 읽는 것 같은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집에 도착하기까지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풀어놓은 게 이 프로젝트입니다.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긴 여정 중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부딪히게 되고, 북극해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는 여정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상하게 서울 집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서울 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건가, 하고."

서도호의 작품은 자전적 성격이 크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있다. 인종과 국가와 성별을 초월하는 어떤 정서. 이민과 망명 등 낯선 곳으로 주거를 옮기는 고통과 추억,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공감이랄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의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철거를 앞둔 영국 런던의 주거 단지 '로빈 후드 가든'과 대구의 '동인시영아파트' 공간을 영상으로 기록한 작품도 볼 수 있는데, 무수히 떠나가야 하는 '집'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함을 자아낸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디블렌트 CD)


4

**Suh Se Ok × LG OLED**
서도호가 그리고 서을호가 짓다

# Splended Return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에 대한 노하우와 창의적인 디자인의 결합으로 완성된 아이코닉함의 절정,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또 하나의 강력한 유산이자 새로운 매력을 더할 미니 사이즈로 선보인다. 시대는 물론 차원을 초월하는 새로운 로열 오크의 탄생.

1972년 전설적인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Gérald Genta)의 스케치에서 탄생한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 로열 오크(Royal Oak). 시대를 앞선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으로 유럽과 북미의 부유한 남성 고객뿐 아니라 여성 고객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이로 인해 1975년부터 1999년까지 디자인 사무소 책임자였던 재클린 디미에르는 1976년 로열 오크의 첫 여성용 시계인 29mm 사이즈의 로열 오크 II를 탄생시킨다. 이후 1980년 24.5mm 버전에 이어 1997년 지름이 20mm에 불과한 미니 로열 오크를 선보이며 로열 오크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역작을 남겼다. 이러한 로열 오크 미니 사이즈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데마 피게에서는 또 한 번 소형 로열 오크 쿼츠 모델을 공개한다. 지름은 23mm로 완성했으며, 1997년에 출시된 미니 로열 오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18K 옐로·핑크·화이트 골드 등 세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오리지널 로열 오크의 강력한 미학적 코드에 프로스티드 골드의 섬세함을 결합해 세련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피렌체의 전통적인 주얼리 장식 기법에서 영감받은 프로스티드 골드 마감은 주얼리 디자이너 카롤리나 부치(Carolina Bucci)에 의해 재조명되어 특별한 미학을 보여준다. 기요셰(guilloché) 다이얼은 케이스 색상과 잘 어울리는 톤온톤의 프티 타피스리(petite tapisserie)로 완성하고, 야광 물질로 채운 다면의 골드 아워 마커를 매치해 어둠 속에서도 최적의 가시성을 제공한다.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쿼츠 무브먼트인 칼리버 2730으로 구동하며, 수명이 7년 이상인 배터리를 갖추었다. 또 스위치를 장착해, 착용자가 크라운을 당기기만 하면 배터리를 무기한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 제랄드 젠타의 디자인, 카롤리나 부치의 주얼리적 감성과 로열 오크 미니 사이즈의 역사적 의미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더해 탄생시킨 고성능 쿼츠 무브먼트까지. 이 워치를 보유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1

2

**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오리지널과 미니 사이즈를 동시에 매치한 광고 비주얼. **2** 세 가지 버전의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미니 사이즈. **3** 옐로·로즈·화이트 골드의 로열 오크 미니 사이즈. **4**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미니 옐로 골드 버전. **5** 로열 오크 미니의 세 가지 버전을 모두 착용한 광고 비주얼 속 모델. **6** 오데마 피게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

*"작고 매력적이며 창의적이고 가벼운 로열 오크 미니 시계가 1997년에 탄생한 여성 신화를 부흥시킵니다. 이 시계들은 시대와 성별, 유행, 차원을 초월하는 로열 오크 컬렉션의 놀라운 정신을 보여줍니다."*

*by 오데마 피게 헤리티지 및 뮤지엄 디렉터 세바스티안 비바스(Sébastian Vivas)*

**과거와 현재의 위대한 만남**

드디어 서울에도 오데마 피게의 첫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한다. 암스테르담, 방콕, 바르셀로나, 홍콩, 런던, 로스앤젤레스, 마드리드, 밀라노, 뮌헨, 뉴욕, 상하이, 생바르텔레미, 텔아비브, 도쿄, 취리히에 이어 21번째 스토어다. 무려 940㎡(약 2백84평) 면적에 6층 규모의 건물에는 부티크는 물론 AP 하우스 및 고객 서비스 센터가 자리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물 외관은 떨어지는 빗방울을 연상시키는 브론즈 색상의 멀리언(mullion) 구조물로 장식했는데, 이는 오데마 피게의 본고장인 스위스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의 자연 경관에서 영감을 얻었다. 브랜드의 오랜 파트너인 코스타 스타타키스(Kosta Stathakis)가 이끄는 스위스 기반의 블렌드 스튜디오(Blndd. Studio)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실내 디자인은 오데마 피게 스위스 유산과 한국의 문화 및 서울의 생동감 넘치는 리듬을 엮어 완성했다. 특히 2개 층에 걸쳐 있는 하우스 서울은 플래그십 스토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국 문화에 내재된 금속, 물, 나무, 불, 흙 등 다섯 가지 원소인 오행을 담아냈다. 또 AP 하우스는 브랜드 창립자 쥘 루이 오데마(Jules Louis Audemars)와 에드워드 오귀스트 피게(Edward Auguste Piguet)가 21세기에 어떻게 세계를 여행하며 아름다운 시계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지 상상한 것을 바탕으로 설계했다. 그 결과 집 같은 편안함과 인간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세련된 공간이 탄생한 것. AP 하우스 서울은 고객과 시계 애호가를 오데마 피게의 세계로 초대함과 동시에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환대 및 판매의 개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오데마 피게 플래그십 스토어의 그랜드 오프닝은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543-2999

# Glam Chic

남다른 볼륨감과 우아함으로
스타일에 품격을 더할 글래머러스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투보가스 네크리스** 1940년대 주얼리 제작 기법을 활용해 탄생한 아이코닉한 컬렉션.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3천90만원. 문의 02-6105-2120

**쇼메 비 마이 러브 브레이슬릿**
미러 폴리싱 처리한 로즈 골드를 사용해 강렬한 태양 빛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1.7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6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했다. 2천만원대. 문의 02-1670-1180

**프레드 포스텐 커프 브레이슬릿**
포스텐 모티브가 임팩트를 주는 글램한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옐로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5천4백60만원. 문의 02-514-3721

**티파니 쟌 슐럼버제 바이 티파니 아폴로 브로치** 18K 옐로 골드와 플래티넘으로 완성했으며, 총 6.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디올 파인주얼리 마이 디올 브레이슬릿**
디올 패션 하우스의 직조물 패턴과 같은 쿠튀르적 터치를 가미한 패턴을 밴드에 새긴 브레이슬릿으로 모던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연출을 돕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포멜라토 이코니카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볼드한 디자인이 특징인 체인 디자인 네크리스. 옐로 골드에 총 4.6캐럿의 다이아몬드 5백67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피아제 선라이트 링**
메종이 사랑하는 모티브 중 하나인 밝게 빛나는 태양에서 영감받은 유니크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18K 핑크 골드에 데코 팰리스 인그레이빙하고 총 19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31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화려하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손에 볼륨감과 포인트를 준다. 1천만원대. 문의 1668-1874

**부첼라티 마크리 AB 브레이슬릿**
안드레아 부첼라티가 디자인한 아이코닉한 마크리 AB 컬렉션의 브레이슬릿. 두칼레 궁전의 장식과 베네치아의 역사적 건축물에서 영감받았다. 화이트 골드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하는 메종만의 시그너처 리가토 기법으로 반짝임과 글램함을 부여했다. 5천2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에디터 **성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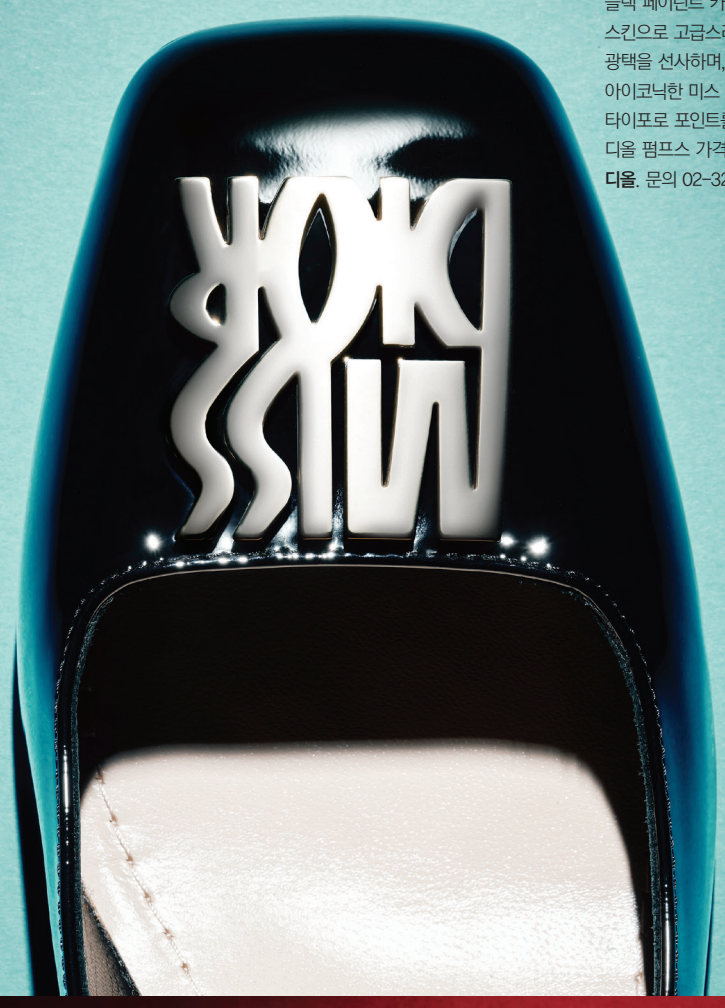
# Elegant Timekeeper

우아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크로노그래프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위부터 차례대로)
**피아제 폴로 크로노그래프** 42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는 약 2.65캐럿의 1백78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이얼에는 약 0.99캐럿의 2백8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독보적인 화려함을 부여했다. 여기에 블루 컬러 크로노그래프 창으로 멋스러운 포인트를 더했다. 자체 제작 1160P 블루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억4천9백50만원. 문의 1668-1874
**브레게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7** 42.3mm 사이즈 케이스와 수공 인그레이빙한 실버드 골드 다이얼의 고급스러운 조화가 돋보인다. 3시 방향에 미닛 카운터, 6시 방향에 아워 카운터,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4시와 5시 방향 사이에 날짜창이 위치해 안정감 있는 밸런스가 느껴진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Cal. 582QA로 구동하고 4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9천4백57만원. 문의 02-3479-1008
**오데마 피게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 지름 41mm의 18K 핑크 골드 소재 케이스와 짙은 블루 컬러 다이얼이 모던함을 강조한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추고, 무려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칼리버 4401로 구동한다. 7천2백51만원. 문의 02-533-1351
**위블로 빅뱅 유니코 킹골드 화이트** 세련된 멋이 돋보이는 새틴 마감 및 폴리시드 18K 킹골드 소재로 탄생한 42mm 케이스와 베젤, 화이트 스트랩이 조화를 이룬다. 3시 방향에 크로노그래프 화이트 컬러 창을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으며, HUB1280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6천1백만원대. 문의 02-540-1356
**IWC 포르토피노 크로노그래프 39** 비교적 작은 사이즈인 39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가는 손목에도 탁월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퀵 체인지 시스템을 적용한 베이지 카프 스킨 스트랩을 장착해 클래식한 느낌을 배가했다. 자체 제작 69355 칼리버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가 최대 30분의 시간 측정 기능을 제공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15
**까르띠에 파샤 드 까르띠에** 현대적인 이미지와 스포티한 무드를 선사하는 41mm 스틸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블루 스틸 핸즈가 특징이며, 오토매틱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메커니컬 무브먼트인 1904-CH MC 칼리버를 탑재했다. 1천4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에디터 **윤자경**

# Get The



**DIOR**
블랙 페이턴트 카프 스킨으로 고급스러운 광택을 선사하며, 아이코닉한 미스 디올 타이포로 포인트를 준 미스 디올 펌프스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LORO PIANA**
유서 깊은 직조 기법을 사용해 패브릭이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플랩과 메탈 바가 돋보이는 디자인이 일품이다. 카프 스킨으로 제작해 독특한 텍스처와 가벼운 무게감을 선사하는 룸백L32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CARTIER**
사랑, 우정, 신의 등을 상징하는 컬렉션으로, 화이트·옐로·핑크 골드로 이루어진 3개의 원형 링이 한데 엮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하나의 링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담았다. 트리니티 네크리스 6백만원대 **까르띠에**. 문의 1877-4326

**CHANEL FINE JEWELRY**
브랜드의 상징적인 숫자 5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디자인의 이터널(Eternal) N°5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숫자 5 모티브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샤넬 화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 List

지금, 당신이 주목해야 할 패션·주얼리·워치 리스트.

PHOTOGRAPHED BY **YI JU HYUK**

**LOUIS VUITTON**
브랜드의 유서 깊은 여행용 트렁크 내부 퀼팅 디자인에서 영감받은 램스킨 소재의 핸드백으로, 스모키 효과를 더한 파스텔 색조의 다이아몬드 모양 패턴이 특징인 GO-14 PM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CELINE**
단단하게 잡힌 모양과 은은한 광택이 돋보이는 베이지 카프 스킨 소재의 틴 나노 백. 트리옹프 메탈 잠금장치가 포인트다. 4백40만원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문의 1577-8841

**VAN CLEEF & ARPELS**
네 잎 클로버에서 영감받은 알함브라 컬렉션의 워치. 기요셰 디테일을 더한 18K 옐로 골드와 블루 아게이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MONTBLANC**
(왼쪽부터) 몽블랑 최초의 스포츠 다이빙 워치 몽블랑 1858 아이스드 씨 오토매틱 데이트. 기존의 블랙 글래시어 패턴 다이얼에 브론즈 케이스를 적용해 빙하 위로 지는 석양빛을 표현했다. 지름은 41mm이며, 칼리버 MBMXE0QCTM으로 구동한다. 5백52만원. 브랜드 역사에 남을 아이코닉한 디자인의 만년필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짙은 블랙의 고급 레진과 골드 코팅 디테일에 수공으로 제작한 Au 750 골드 닙이 조화를 이루는 타임리스한 디자인의 마이스터스틱 149 1백45만원. 모두 **몽블랑**. 문의 1877-5408 에디터 **성정민**

# 2024 F/W Trend Report

단정한 컬러 팔레트와 완벽한 실루엣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성이 강조되었던 2024 F/W 컬렉션. 런웨이에서 자주

## Transformation of Denim

데님에 대한 패션계의 사랑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은 데님 소재의 다양성을 탐닉하는 듯 느껴진다. 데님의 메카인 디젤 쇼에서는 데님이 컬렉션 전반에 걸쳐 등장했는데, 데님을 완전히 코팅했다가 크랙 처리한 블랙 코트와 팬츠, 그리고 가죽처럼 코팅한 데님을 통해 변화무쌍하고 흥미로운 변신을 엿볼 수 있었다. 아크네의 데님은 오일 코팅과 금속성 후처리를 거쳐 가죽처럼 보이도록 가공했으며, 블랙 컬러로 오일 코팅 처리한 데님 트래커 재킷은 소매 끝을 살짝 접고 블루 부분을 드러냄으로써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룩을 선보여 매력적인 변주를 감상할 수 있었다.

## Hyper Modernism

포스트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심플한 스타일에 대한 갈망이 싹트고 있다.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을 강조하고, 컬러까지 그레이·블랙·네이비 정도로 한정했다. 막스마라 쇼에서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롱 블랙 코트를 오프닝 룩으로 채택했으며, 핑크와 레드 등 강렬한 컬러가 시그너처로 자리 잡은 발렌티노의 쇼에도 블랙 컬러 룩이 대거 등장했다. 이번 가을, 조금 더 시크한 모습을 강조하고 싶다면 하이퍼 모더니즘 스타일링을 시도할 것.

## Inspired by Lingerie

이번 시즌 란제리의 섬세하고 우아한 감성과 사랑에 빠진 디자이너가 많은 듯하다. 전반적으로 섬세한 자수와 매혹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룩을 대거 선보인 돌체앤가바나부터 화려한 레이스 다자인에 위트 있는 디테일을 더한 모스키노까지. 하지만 고유의 여리여리한 느낌보다는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을 대변하는 데 집중한 듯하다. 구찌의 사바토 데 사르노는 란제리에서 영감받은 레이스 브래지어와 시스루 캐미솔, 벨벳 드레스를 통해 1990년대 톰 포드의 섹시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오마주해,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구찌 여성상을 엿볼 수 있었다.

## Leather Lover

매해 F/W 컬렉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가죽이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올해 트렌드는 채도 낮은 레드 컬러 가죽. 가죽 자체가 선사하는 도회적 매력과 세련된 분위기가 매력적이며 각 브랜드마다 각각의 시그너처 포인트를 조합해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차분한 레드 컬러 롱 가죽 코트의 네크라인에 흐트러지는 실루엣으로 포인트를 가미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에르메스에서는 보디에 피트되는 실루엣이 돋보이는 미니멀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아이템의 레이어링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죽 코트 자체의 멋을 돋보이게 했다는 것.

## Like a Ballerina

발레(ballet)와 일상적인 편안함을 뜻하는 놈코어(nomcore)의 합성어인 발레코어(balletcore). 발레리나 하면 떠오르는 의상을 일상복으로 편안하게 연출한 스타일이다. 지난해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선보인 핑크 새틴 발레리나 플랫 슈즈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발레코어 트렌드가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 주목할 점이 있다면 메리제인 슈즈, 샤 스커트, 니삭스 등 한 가지 아이템에 국한되지 않고, 발레코어 룩이 자연스럽게 의상 전체에 녹아들었다는 것. 프라다 쇼에 등장한, 리본으로 가득 메운 베이비 핑크 컬러 원피스부터 손으로 완성한 코르사주를 매치한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룩까지, 사랑스러운 소녀들이 런웨이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 for women & men

발견할 수 있었던 실험적 도전을 뒤로하고 '옷'이라는 기본에 충실한 듯 보인다. 그럼에도 고혹적이고 감도 높은 컬러와 실루엣으로 컬렉션을 감상하는 재미를 더한다.

## Cool Leather Pants

레더 아이템이 루이 비통, 베르사체, 보테가 베네타, 에르메스 같은 빅 브랜드의 쇼에 심심찮게 등장한 가운데, 트렌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레더 팬츠'가 있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특히 루이 비통 쇼에서는 화려한 재킷에 버건디 레더 팬츠를 매치해 색다른 매력을 드러냈다. 베르사체는 전과 다르게 핏이 넉넉한 레더 팬츠에 톤온톤 상의를 매치해 평키한 느낌을 덜어내고 댄디하면서도 스마트한 무드를 더했다. 가죽 바지를 소화하기 부담스러웠다면 이번 시즌 룩들을 참고해볼 것.

## 1980's Power Dressing

생 로랑 맨즈 쇼는 이브 생 로랑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슬림하고 다소 피곤한 모습에 큼직한 안경을 걸친 모델이 걸어 나오며 시작됐다. 쇼장의 모든 이들은 이브 생 로랑을 만난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안토니 바카렐로가 1980년대 파워 드레싱과 포멀하고 클래식한 테일러링을 가미한 룩을 완벽하게 매칭한 탓. 어깨 구조감이 부드러운 오버사이즈 헌팅 재킷을 선보인 프라다, 모델보다 곱절이나 큰 오버사이즈 코트를 선보인 마르니 등 이번 시즌 맨즈 룩은 파워 드레싱을 강조해, 보다 드라마틱한 재킷 스타일의 열풍을 예감하게 했다.

## Now, Khaki

작년 런웨이를 점령했던 강렬한 레드 컬러와 대조적으로 올해는 차분하고 단정한 무드의 카키 컬러가 빅 패션 하우스의 런웨이를 물들였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카키 컬러의 레더 재킷에 톤온톤 팬츠를 매치해 모던하면서도 영국 스트리트 문화에서 비롯된 펑키한 분위기를 전개한 버버리, 깨끗한 셔츠에 상·하의 모두 카키 컬러로 물들인 올 카키 룩을 선보이며 단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랑한 발리 등 많은 브랜드에서 선보인 카키 룩은 스타일링에 따라 제각기 다른 색으로 보일 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했다.

## Longer is Better

올가을, 꼭 기억해야 할 코트 키워드는 길이. 이번 시즌 트렌드 키워드가 심플함과 일상성인 만큼 겨울 코트는 디테일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길이에 변화를 주어 트렌드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슬림해 보이면서도 클래식한 스타일을 보여준 발렌티노의 그레이 컬러 롱 코트는 여자가 봐도 탐날 만큼 우아하고 아름답다. 보다 경쾌한 무드로 영한 감성을 부각한 이자벨 마랑의 코트는 캐주얼하지만 넉넉한 실루엣으로 시크함을 돋보이게 한다.

## The Men's Bag

한 팔에 쏙 안기는 크기의 클러치 백이나 포켓 여러 개로 기능성을 강조한 유틸리티 디테일을 갖춘 백팩이 주가 된 작년과 달리, 이번 시즌 남성 백 트렌드는 한 손에 들 수 있는 큰 사이즈의 토트백이다. 이번 시즌 가방 쇼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손목을 감는 장식이 특징인 발렌티노의 백, 장인 정신으로 완성한 토즈의 백, 퍼렐의 터치로 완성한 루이 비통의 다채로운 빅 백을 추천한다. 에디터 **윤자경**

어시스턴트 김보민

# the new look

가을, 새로운 스타일과 만나다. 2024 F/W 키 룩 컬렉션.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에레나** 이번 가을 모두 가져야 할 부츠 모든 것 지금 스타일이 필요한 스니커즈 키 스타일 컬렉션

블랙 드레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블랙 탱고 펌프스 가격 미정 구찌. 가격 미정 발렌티노.

하운즈투스 체크 패턴의 재킷, 스커트, 화이트 칼라 슬리브리스 톱, 울 펠트 소재의 트라우프 캡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만

사파리 울 트윌 셔츠, 바스코스 디그레이드 페탈 스커트, 고트 스킨 소재의 슬링백 펌프스 모두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체크 패턴의 로드스터 미니 재킷, 더블브레스트 재킷, 스커트, 레오퍼드 패턴 슈즈, 펠트 소재의 이블린 햇, 실크 스카프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핑크 캐시미어 카디건 3백40만원대, 피스타치오 니트 톱 2백만원대, 지오메트리 울 스커트 2백90만원대 모두 **프라다**, 무채 스트라스 펄 이어링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네이비 컬러 페틀 코트, 화이트 컬러 보 셔츠, 뷔스티에 하이 웨이스티드 진 모두 가격 미정 **로에베.** 블랙 탱고 펌프스 1백28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버드 태일 백과 가죽 칼리 디테일의 스톤 그레이 코트 캔버스 재킷 6백40만원대, 블랙 인조 퍼 라운드 지퍼 소재 스커트 1백90만원대 모두 **맥퀸 by 션 맥기르**

헤어 **마준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Rachel Martin(Jennifer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에르메스** 02-542-6622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로로피아나** 02-6200-7799
**프라다** 080-522-7199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1577-8841
**맥퀸 by 션 맥기르** 02-6105-2226
**로에베** 02-3479-1785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종을 상징하는 스퀘어 버클이 돋보이는 벨 비비에 터틀 PVC 슬링백 펌프스 1백20만원대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1990년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스티치 디테일의 청키한 블록 힐을 더한 아이보리 뉴 바라 미르티 로퍼 힐 가격 미정 **페라가모**. 문의 02-3430-7854. 세련된 레오퍼드 송치 소재의 알마 트리옹프 플랫 슬링백 가격 미정 **셀린느 바이 에디슬리먼**. 문의 1577-8841. 클래식 무드를 배가하는 스퀘어 토를 갖춘 하운즈투스 패턴의 패브릭 펌프스 1백20만원대 **돌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발등을 레터링 로고로 장식한 옐로 새틴 펌프스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3-6047. 아이코닉한 모카신 스타일을 접목한 홀스빗 디테일의 플랫폼 슬링백 2백만원대 **구찌**. 문의 02-3452-1521

객원 에디터 **이혜미**

# Step into fall

발끝에서 완성되는 강렬한 스타일. 패션 하우스의 2024 F/W 시즌 뉴 슈즈.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 Color Me!

바랜 듯 차분한 레드부터 웨어러블한 핑크, 생동감 넘치는 오렌지까지.
가을에 선명한 에너지와 재미를 더할 신상 립스틱 8.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루쥬 알뤼르 벨벳 틴트 236 앙상씨롱** 실크처럼 부드러운 텍스처와 내장된 곡선 애플리케이터를 통해 제품의 발림성과 밀착력을 높였다. 총 15가지 컬러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6ml 5만9천원. 문의 080-805-9638

**버버리 뷰티 브릿 샤인 605 켄싱턴 크러시** 식물 유래 성분을 함유해 립 케어와 동시에 플럼핑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글로시 립. 3g 5만7천원. 문의 080-850-0708

**구찌 뷰티 루즈 아 레브르 매트 로소 양코라** 브랜드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바토 데 사르노가 전개하는 첫 립스틱으로, 강렬한 버건디 레드빛의 매트 텍스처가 돋보인다. 3.5g 6만3천원. 문의 080-850-0708

**지방시 뷰티 르 루즈 앵떼르디 새틴 114 밀크티 누드** 눈부신 광택의 글로시 립. 누드와 레드, 브라운 등 다양한 피부 톤에 어울리는 컬러 셰이드를 제안한다. 2.7g 5만6천원. 문의 080-801-9500

**조르지오 아르마니 뷰티 프리즈마 글래스 립글로스 02 캔디 헤일로**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핑크빛을 머금은 쫀쫀한 텍스처의 립글로스다. 제품에 함유된 15% 이상의 스쿨렌 성분이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 립밤 못지않은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3.5ml 6만2천원. 문의 080-022-3332

**발렌티노 스파이크 컬렉션 100R 스탠드 아웃 인 누드** 매트하지만 부드럽게 발리는 독특한 텍스처가 바르는 순간 입술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 밀착력과 지속력을 높여준다. 발렌티노 하우스의 DNA를 엿볼 수 있는 골드 락스터드 패키지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 2.3g 6만7천원. 문의 080-835-0074

**디올 루즈 디올 누드 컬렉션 299 아무르** 루즈 디올 컬렉션에 맑은 베이지, 짙은 로즈 우드 컬러 등 총 다섯 가지 셰이드를 추가했다. 그중 톤 다운된 핑크 컬러인 아무르는 보송보송한 벨벳 텍스처로 호불호 없는 데일리 가을 룩을 완성할 수 있다. 3.5g 5만9천원. 문의 080-342- 9500

**끌레드뽀 보떼 더 프레셔스 립스틱 1 텐더 레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자수정 등 여섯 가지 보석 컬러에서 영감받았다. 실제 순도 높은 다이아몬드와 24K 골드를 적절히 배합해 입술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영롱한 광채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4g 15만원대. 문의 080-564-7700

객원 에디터 **김하얀**

# Editor's Pick

지금은 뷰티 서랍장 속을 바꿔줄 시간. 편집부가 엄선한 이달의 뷰티템 12.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1 라프레리 라이프 매트릭스 오뜨 레쥬베네이션 크림** 용기 디자인부터 고도의 기술력과 럭셔리한 느낌을 뿜어낸다. 아침저녁으로 발라도 무겁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어 쫀쫀한 탄력감을 주는 것이 놀랍다. 오히려 소량을 바르는 것이 피부에 더 적절하게 작용하는 듯. 시술 없이도 이 크림만 있으면 무적의 탄력 광채 피부로 재탄생할 수 있을 듯. 50ml 2백63만3천원대. 문의 02-6390-1148 _by 에디터 **성정민**

**2 샤넬 루쥬 알뤼르 벨벳 틴트 218 엉부떵뜨** 립 메이크업에서 지속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추천. 밥 먹은 뒤에도 거의 지워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실크처럼 가벼운 텍스처는 자연스럽게 물든 듯한 컬러를 남기며, 바르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준다. 6ml 5만9천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3 어노브 실크 오일 에센스 웜 페탈** 뜨거운 태양에 머릿결도 손상되는 계절이다. 끈적임이나 뭉침 없이 가볍게 흡수되는 실크 포뮬러가 부스스한 모발을 매끈하게 정돈해주며, 부드러운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또 따뜻하고 우아한 플로럴 머스크와 가벼운 목재 향이 어우러져 오랫동안 머리카락에 머물러 기분까지 산뜻하게 해준다. 70ml 2만5천원. 문의 1670-5875 _by 에디터 **윤자경**

**4 이솝 비레레 EDP** 라틴어로 '푸르다', '생기가 넘치다'라는 뜻을 지닌 비레레는 이솝 프래그런스 클래식 레인지 라인의 11번째 향으로 출시되었다. 햇살 가득한 싱그러움을 머금은 시트러스와 무화과의 달콤 쌉싸래한 향이 조화를 이루어 다가오는 초가을을 맞이해 데일리 퍼퓸으로 쓰기 제격이다. 가격 50ml 17만원. 문의 1800-1987 _by 에디터 **신정임**

**5 비디비치 글로우 크림 블러시 03 팬지 라벤더** 피부에 자연스럽게 블렌딩되어 은은하게 발색되는 것이 특징. 스킨케어 성분으로 번들거림 없이 자연스럽고 가벼운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6g 3만2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6 산타마리아 노벨라 메디치 가든 바디 컬렉션 바뇨쉬우마 매그놀리아** '메디치 가든 컬렉션 오 드 퍼퓸'을 베이스로 한 보디 케어 라인 중 젤 타입 보디 워시. 은은하고 우아한 향이 매력적인데, 오래도록 지속되어 더욱 만족스럽다. 섬세한 거품이 일며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리프레시해준다. 250ml 8만5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라윤**

**7 달바 화이트 트러플 모이스처라이징 세럼 토너** 수분을 가득 머금은 세럼 제형의 토너로, 화장솜에 덜어 피부에 롤링하는 순간 워터 제형으로 바뀌면서 빠르게 흡수되고, 깊은 보습감과 산뜻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었다. 비타민과 글루타치온 성분을 함유해 투명한 피부를 만나볼 수 있다. 180ml 2만9천9백원. 문의 02-332-7727 _by 에디터 **윤자경**

**8 아워글래스 언리얼 리퀴드 블러쉬 #씬** 용기를 흔든 후 소량을 짜내면 매우 묽은 액체가 나오는데, 립 또는 치크에 바르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총 일곱 가지 컬러 중 소프트 웜 핑크 컬러인 #씬(scene)은 매우 사랑스럽다. 동물성을 전면 배제한 비건 성분으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 철학도 맘에 든다. 10.3ml 5만8천원.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장라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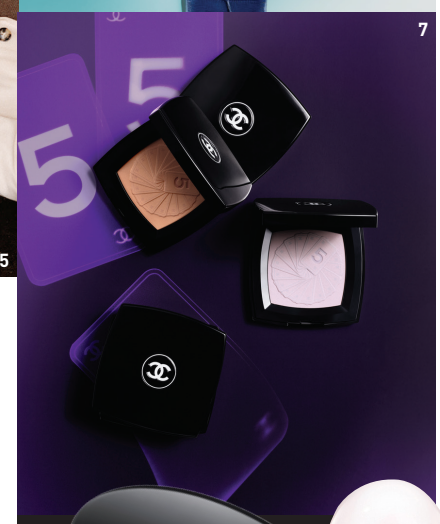
**9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아이 앤 립 컨투어 리제너레이팅 크림** 9월은 여름 내내 스트레스받은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불어넣어줄 시간. 시세이도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컬렉션 크림으로 아침저녁으로 발랐더니 약해지기 쉬운 눈가와 입가 피부에 유독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듯한 느낌이다. 17ml 21만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장라윤**

**10 딥티크 로 파피에 컬렉션 엉크르 클래식 캔들** 종이 위에 그려나가는 글과 데생에서 풍기는 잉크 향을 오마주해 탄생한 향으로 고급스러운 서재에 딱 어울릴 듯. 인도네시아산 파촐리의 풍부한 향과 미네랄 잉크 어코드의 조화로 완성했다. 190g 9만9천원.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성정민**

**11 키스 컬러드 키스 캘리포니아 페더라이크 쿠션** 쨍한 오렌지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 쿠션은 패더-라이크 테크놀로지(FEATHER-LIKE TECHNOLOGY)를 적용해 깃털처럼 가벼운 텍스처를 자랑하고,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 추출물을 함유해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피부 톤까지 화사하게 밝혀준다. 14g 3만2천원. 문의 070-4176-4616 _by 에디터 **신정임**

**12 러쉬 터메릭 프레쉬 페이스 마스크** 마치 집에서 만든 팩처럼 추출한 재료에 합성 보존제 없이 꿀과 함께 담아 원재료의 효능을 극대화한 팩이다. 요즘같이 더운 날 지치기 쉬운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제격이다. 항균 및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강황 가루와 수렴·항균 작용을 해주는 오렌지 주스가 들어 있어 피부 진정과 탄력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 75g 2만5천원. 문의 1644-2357 _by 에디터 **윤자경**

※ 장라윤(40대 건성), 성정민(30대 민감성), 윤자경(30대 복합성), 신정임(20대 지·복합성)



# Showroom

**1 스톤 아일랜드 스톤 아일랜드 X 프리즈 서울,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럭셔리 스포츠웨어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아트 페어인 프리즈의 신생 갤러리 전용 섹션인 프리즈 포커스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프리즈 포커스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스톤 아일랜드와 아티스트 박경률 작가와 협업해 완성한 프리즈 유니폼 티셔츠 시리즈를 선보인다. 문의 02-516-2778

**2 토즈 디아이 폴리오 백**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새로운 디아이 폴리오 백을 출시했다. 기존 디아이 백을 재해석한 이번 신제품은 얇고 가벼운 가죽 소재로 완성했으며 미디엄과 맥시, 2가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전체 백 디자인에 커팅 디테일을 가미해 포인트를 주었고, 내부에 별도의 클러치 백을 더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문의 02-3438-6008

**3 리모와 오리지널 & 에센셜 수트케이스** 리모와에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 여행객들을 위한 오리지널 & 에센셜 수트케이스를 제안한다.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오리지널 컬렉션은 시크한 무드의 현대적인 감성을 선사하며, 에센셜 수트케이스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제작해 가볍고 높은 내구성을 자랑한다. 문의 02-546-3920

**4 그라프 그라프 팝업 스토어 리뉴얼 오픈** 영국 하이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1층에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메종의 로렌스 그라프 시그너처를 비롯해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라이덜, 그라프 버터플라이, 틸다의 보우 등 다양한 컬렉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5 로로피아나 로로 데님 캡슐 컬렉션 출시**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로로 데님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일본 빙고 지역의 데님 제조 전문가와 협업을 맺고 제작한 이번 컬렉션은 재킷, 팬츠 등 다양한 아이템을 솔리드 블루 염료로 제작한 캐시데님® 리액티브,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는 데님 샴브레이 등 자체 제작한 데님 소재로 만나볼 수 있으며, 시그너처 백인 빔 토트, 엑스트라 백 등도 함께 선보였다. 문의 02-6200-7799

**6 티파니 쟌 슐럼버제 바이 티파니, 버드 온 어 락 워치 출시** 1백87년의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에서 쟌 슐럼버제의 버드 온 어 락 브로치를 모티브로 제작한 '버드 온 어 락 워치'를 공개했다.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36mm와 39mm, 2가지 다이얼 버전으로 선보이며 모델마다 3백50개에서 4백1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아울러 착용자의 손목 움직임에 따라 다이얼에 탑재된 새 모티브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1670-1837

**7 샤넬 뷰티 레 타로 드 샤넬** 샤넬 뷰티에서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점술에 영감받아 제작한 '레 타로 드 샤넬'을 선보였다. 부드러운 파우더 블러셔에 숫자 5의 타로 카드가 새겨져 있으며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줄 라벤더, 블러드 오렌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8 에이피 뷰티 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운데이션 출시** 에이피 뷰티가 '프라임 리저브 리트리니티 메쉬 파운데이션'을 출시했다. 피부 톤에 따라 선택 가능한 17C 쿨 포슬린, 21N 퓨어 아이보리, 22N 페탈 베이지 등 3가지 셰이드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플라보노이드 228K™가 들어 있어 피부에 탄력과 광채감을 선사한다. 문의 080-023-5454

**9 시세이도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 시세이도가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날씨에 제격인 베이스 아이템으로 '리바이탈에센스 스킨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제안한다.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바이오 부스트레드 테크놀로지(Bio-BoostRED Technology)를 적용해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선사하고, 자연스러운 커버력과 촉촉한 텍스처로 피붓결을 정돈해주어 은은한 광택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80-564-7700

**10 블랑팡 새로운 버전의 피프티 패덤즈 바티스카프 컬렉션 출시** 블랑팡에서 피프티 패덤즈 컬렉션의 컴플리트 캘린더 모델과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모델을 풀 레드 골드 버전으로 출시했다. 18K 레드 골드 브레이슬릿에 블루 다이얼로 완성했으며, 은은한 그러데이션과 선레이 마감으로 빛에 따라 변하는 광채를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2-3497-1833

**11 시몬스 뷰티레스트 신제품 출시**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뷰티레스트 론칭 10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뷰티레스트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항공 엔지니어링 기술에 특수 소재로 활용되는 바나듐을 국내 최초로 포스코산 경강선에 적용해 고압과 고온 등 극한의 조건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내구성과 유연성, 그리고 탄성을 갖추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www.simmons.co.kr

**12 랄프 로렌 컬렉션 스펜서 울 크레이프 재킷**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 가을을 맞이해 스펜서 울 크레이프 재킷을 출시했다. 더블브레스트 실루엣이 특징인 이번 신제품은 피크트 라펠을 더해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엠보싱 처리한 랄프 로렌의 스크립트 모노그램 버튼 디테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문의 02-3467-6560